

만남·나눔·추모...도약발판 마련

광주생명나눔 창립 10주년행사 10월 9~22일



광주생명나눔이 지난 여름 개최한 생명나눔 캠페인에 참가한 어린이들.

광주지역 대표적 신행단체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는 10월 9~22일까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생명나눔이 10년간의 사업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4개의 주제에 따라 광주시민과 만남의 날, 환우가족과의 만남의 날, 환우 추모의 날, 생명나눔의 날(남녀성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로 펼쳐진다.

광주시민과 만남의 날은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와 공동주관으로 진행되고, 광주시청과 광주일원에서 끝수기증, 장기기증, 헌혈은행 캠페인이 10월 9일 진행된다.

10월 18일 진행되는 환우가족과 만남의 날은 병상에서 지친 환우가족들을 초청해 가을나들이를 떠난다. 생명나눔 관계자는 "가을 나들이에는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숲 탐방도 함께 진행되며, 무등산 풍경소리음악회에도 동참한

다"고 말했다.

환우 추모의 날은 10월 19일 무등산 원효사에서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과 함께 진행한다. 그동안 광주생명나눔에 시신기증을 했거나, 무병 중 사망한 환우를 위한 천도제가 봉행된다.

생명나눔의 날인 10월 22일에는 5.18기념문화관에서는 장용실 KBS나운서 사화로 니르바나필 하모니오케스트라, 범능 스님, 류상호, 주권기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행사를 기획한 윤예중 사무국장은 "최근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광주생명나눔이 지난 10년간 많은 역할과 함께 불교계의 사회복지 분야에 참여해 공헌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불자들의 후원과 함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생명나눔은 1989년 9월 19일 창립, 광주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활동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회암사 성보박물관 상량식 봉행

구례 회암사(주지 종삼)는 9월 12일 경내에서 주지 종삼 스님, 선원장 현산 스님과 각 말사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보박물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성보박물관은 2007년 12월 설계안을 완료하고 2008년 1월 기공식을 했다. 전체 공사비 60억원으로 건축부분 30억과 전시부분 30억원이 들어간다. 정면 13칸, 측면 3칸의 7자 형태의 건물로 지하 1층은 120평으로 수장고와 전시준비실 등이 들어

서며, 지하1층은 113평 규모의 상설 전시관을 마련했다.

회암사 성보박물관은 성보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시를 비롯해 주변 말사의 소실될 위험에 처해 있는 성보 문화재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회암사는 사적명승으로 지정된 회암사 일대와 회암사각화전(국보 제67호)을 비롯한 국보 4점과 보물 8점의 수많은 지방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교편향 규탄 삼보일배로 한마음

광주사암련 · 광주전남아교라 '연대성명'

광주지역 스님들과 재가불자, 인터넷 동호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3보 1배에 나서 눈길을 끈다.

광주불교사암련(회장 정인)을 비롯한 신행단체와 광주전남아교라 연대(대표 ID 지안)는 9월 16일 광주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를 차별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원각사 주지 도계 스님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이 상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종교대화합의 길을 보장하고 공직자가 더 이상 종교차별을 할 수 없도록 종교차별금지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지금껏 이명박 정부가 한 잘못에 반성을 요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국토와 자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분열조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은 인터넷 공간에서 촛불시위를 진행해온 광주전남아교라



광주지역 신행단체 및 광주전남아교라연대 등은 9월 16일 광주 충장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연대가 동참했다. 광주전남아교라연대 대표 ID 지안은 "오늘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 모두 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요구서를 통해 "양극화반대, 종교편향반대, 촛불수배반대, 언론장악반대, 미친소 반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기업인영향반대"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삼보일배에 나선 참가자들은 3보 1배를 하면서, 절 한번, 한번마다 종교편향반대, 양극화반대 등을 외치며 바다에 몸을 던져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3보 1배를 통해 참회하고 의지를 다졌다.

"불사가 곧 수행이자 공덕의 실천"

전주 만월사 원통보전 관세음보살 봉안 및 낙성식 봉행

천태종 만월사(주지 설래)는 9월 18일 전주시 진북동에 대지 약 1만㎡ 건평 7000㎡ 규모의 새 터전을 마련하고 원통보전 관세음보살 봉안 및 낙성식을 봉행했다.

도용 종정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정산 스님, 도정 스님, 총광 스님, 전북사암련협회 회장 원행 스님, 전주 정혜사 지석 스님, 회광수 덕진구 청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도량을 가득 메우고 광주 금광사 합창단의 찬불가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작된 낙성식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완상철봉 길상지에 백련이 피어나듯 밝은 달이 비추니 공덕으로 빛내주고 복덕으로 장엄하다"는 법어를 내리고 찬탄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처사를 통해 "대표적인 문화도시이자 예향인 전주에 만월사가 시민들의 귀의처가 되고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하고 열심히 기도 정진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관음행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사암련협회 회장 원행 스님(김제 금산사 주지)은 축사에서 "전라북도 중심인 전주시 도심 안에 자리잡은 만월사가 불교의 전통을 이어 서로 화합하며 미래를 밝히는 도량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만월사의 낙성을 축하했다.

만월사 주지 대장 스님은 "만월사 공덕으로 빛내주고 복덕으로 장엄하다"는 법어를 내리고 찬탄했다. "시작은 초승달처럼 작게 시작하지



천태종 만월사는 9월 18일 원통보전 관세음보살 봉안 및 낙성식을 봉행했다.

만공 둠근 달처럼 천태 법광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낙성식에 앞서 관세음보살상, 상월원각대조사 진영, 신중탱화, 지장탱화 등을 점안하는 불복식을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광주불교사암련협회 문귀례 총무간사

"포교하려면 신심에 적극성 더해야"

광주불교회관에서는 광주불교사암련협회 총무간사를 맡고 있는 문귀례 보살을 복덩이보살이라 부른다. 지역사회연합회라는 다수의 사찰이 참여하는 연합체에서 문 간사의 역할과 부지런함이 묻어나는 말이라고 광주지역 불교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광주불교사암련협회(회장 정인)는 현재 조계종, 태고종을 비롯한 여러 종단이 참여하는 광주지역 불교계에서 가장 큰 단체다. 현재 150여개 회원사찰이 참여하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상무지구 무각사 내에 광주불교회관을 두고 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불자로서 불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전생에 불교와 많은 인연이 있었나 봐요"

최근 촛불집회와 종교편향까지

도 사암련협회에서 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소신껏 불교에 대해 답해 준다. 앞으로 다른 사람을 포교하려면 신심이 깊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겠어요."

시간날때마다 무각사 법당에서 절하며 기도하는 문 간사의 말에는 불교에 대한 신심이 묻어 나온다.

문귀례 간사는 어렸을 때부터 절과 인연이 깊었다.

"할머니가 자식을 잘 되라고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성장하면서 절에 가서 절만 하는

것이 무슨 종교인가 싶어 한 때는 법당에 기도 삼배 이상은 하지 않은 때도 있었지요. 언젠가 부터 나도 할머니, 어머니처럼 법당에 가면



'복덩이 보살'의 보현행 광주불교의 힘

종단내외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레 문귀례 간사의 일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전혀 귀찮거나 싫은 내색이 없다. 문 간사는 이미 원각사 청년회와 정토회에서 꾸준히 신행활동을 해온 불자이다.

중학생 아들을 둔 주부이기도 한 문귀례 간사는 부처님 일을 할 때 무엇보다도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불교인은 자신이 절에 다녀도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절에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소극적이지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108배를 하고 있더군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던 문 간사는 부처님 인연을 따라 이제는 불교단체를 중흥무진 달리며 자원봉사 등으로 보현행을 실천하고 있었다. 문귀례 간사는 자신도 모르게 광주지역 원력보살로 불자들 사이에는 소문이 나 있었다.

얼마 전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불교대회에서 목청껏 외치는 문귀례 간사의 모습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불자의 당당한 모습을 발견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5199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개강일: 10월 2일 목요일반 ·개강시간: 오후 1시

▶ 교육기간: 6주(24시간) ▶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60만원 ▶ 대상: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아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략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기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공생선원 개원 6주년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 큰스님 초청법회

- 일시: 2008년 9월 28일 일요일
- 시간: 오전 10시 30분
- 장소: 공생선원

공생선원 개원 6주년을 맞이하여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큰스님을 모시고

특별 초청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불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http://cafe.daum.net/zenmaster

서울시 도봉구 쌍문 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 02)900-2448